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1월 18일 주일 설교입니다.

< 착한 일의 시작과 끝 >

빌립보서 1:3-6 / 새찬송가 64 (통일 13) 기뻐하며 경배하세

1.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일은 결국 다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일을 결국 다 헛된 것이며 결국에는 무익한 일입니다(전1:3). 세계정복사업도 학문과 과학의 발전을 위한 일도 결국에는 무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일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살이에 어느 정도의 편의를 줄 수 는 있으나 결국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람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이며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전12:13).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다 같이 참여하였고 그 사실이 바울을 기쁘게 하였습니다(빌1:3-5).

3. 사람의 일은 절대로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이 완성 됩니다

사람은 끝없이 지식을 추구하지만 지식의 발전은 끝을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려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은 완성되지 않고 방향을 잃은 채 무작정 나아가기만 합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다 준 저주입니다(전12:12).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구원의 일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 즉 완성이 있습니다(렘33:1-3).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구원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죄 용서의 일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구원의 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뤄 내십니다. 참으로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계 21:1-4).

치료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면 그 치료가 완성이 되어 다른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남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시관 쓰심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다른 문제가 파생되지 않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4. 모든 일이 완성되지 않으면 피곤할 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일의 시작과 그 끝 즉 완성을 이루며 크고 위대하며 은밀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착한 일이며 구원의 일이며 치료의 일이며 축복의 일이며 반드시 이뤄지고 끝을 보는 완성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모두 다 참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구원의 일을 이루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인생을 위해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 자아를 물리쳐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며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요10:10),(새찬송가 278장).

우리는 주님이 그 착한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 적용 & 실천 >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심을 믿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나 환경을 보며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있습니까?